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주소:우140-869,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61/전화:3271-0490 /fax:716-1513 /담당자:김가화

제가본 제338호 (전도-27)	선			지	
시행일자:천일국원년 천력05.24(양07.02)	결			시	
경유	접	일자	.	결	
수신 전국 교구장 및 교회장	수	시간	:	제	
참조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목: 천일국 원년 제2차 원리시험 결과 발표 및 제3차 원리시험 시행 안내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천일국 원년 제2차 협회, 교구, 교회원리시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 천일국 원년 제2차 원리시험 결과

1) 합격자 명단

순	시험	교구	교회	성명	생년월일	점수
1	협회	서울강북	성북	차준영	1953.01.01.	O
2		경기남부	분당	김난순	1950.11.23.	O
3		경기남부	수원	김교원	1954.03.09.	O
4		경기남부	안산	조경님	1959.12.20.	O
5		경기남부	안성	김진식	1940.09.25.	O
6		충북	청원	이동학	1946.02.02.	O
7		경남	창원	박영배	1962.01.27.	O
8		부산울산	울산	안한수	1939.06.04.	O
9	교구	경기남부	과천	송명호	1959.12.06.	O
10		경기남부	과천	기따가와 후미꼬	1961.03.12.	O
11		경기남부	과천	치케가미 마사시	1964.08.12.	O
12		경기남부	과천	마쯔도메 교꼬	1960.10.16.	O

13	교구	경기남부	평택	오순옥	1957.04.25.	○
14		경남	창원	송종식	1953.02.27.	○
15		경남	창원	박정록		○
16		경남	창원	고모리 아끼라	1954.01.02.	○
17		경남	창원	우미 미끼오	1955.09.01.	○
18		경남	창원	이동주	1955.02.19.	○
19		경남	창원	우미 미치에	1957.10.10.	○
20		경남	창원	히로세 준코	1960.12.22.	○
21		경남	창원	권호균	1957.12.14.	○
22		경남	창원	정숙자	1957.06.02.	○
23		경남	창원	서현순	1957.10.08.	○
24		경남	창원	김가령	1960.03.17.	○
25		경남	창원	장옥자		○
26		경남	창원	이은선	1956.06.23.	○
27		경남	창원	문명태		○
28		경남	창원	유향란	1988.03.18.	○
29		경남	창원	김영숙	1961.01.17.	○
30		경남	창원	고모리 유끼에	1951.12.22.	○
31		경남	창원	김봉애	1958.02.18.	○
32		전북	장수	박세권	1961.01.03.	○
33	교회	경기남부	안산	오오이시 마사미	1964.01.07.	96

34	교회	경기남부	안산	가네다 아케미	1963.07.14.	80
35		경기남부	안산	엔도 유끼꼬	1978.06.15.	72
36		경기남부	안산	고구찌 히로꼬	1969.08.12.	80
37		경기남부	안산	최지선	1968.11.13.	86
38		경기남부	과천	이노우에 아키코	1958.01.23.	88
39		경기남부	과천	전순분		82
40		경기남부	과천	송명호	1959.12.06.	96
41		경기남부	과천	오바타 아쓰꼬	1958.07.09.	96
42		경기남부	과천	기따가와 후미꼬	1961.03.12.	96
43		경기남부	과천	에또 사또미	1963.04.15.	96
44		경기남부	평택	이상목	1954.08.25.	96
45		경기남부	성남	박정애	1955.09.05	80
46		경기남부	성남	에리구치 가즈요	1966.04.07.	88
47		경기남부	성남	양금자	1943.03.25.	82
48		경기남부	성남	도요타 요꼬	1964.02.05.	96
49		경기남부	성남	모리 미유키	1965.06.27.	84
50		경기남부	성남	마키 타카코	1971.06.30.	96
51		경기남부	성남	오가사와라 마리	1963.08.11.	76
52		경기남부	성남	야나기 아이꼬	1967.01.18.	96
53		경기남부	성남	오카다 메구미	1966.04.14.	88
54		경기남부	성남	미조구치 마끼	1962.03.20.	92
55		경기남부	성남	최봉용	1944.01.16.	88
56		경기남부	과천	백미희	1971.11.24.	96
57		경기남부	과천	김성원		96
58		경기남부	과천	히구마 게이꼬	1962.11.21.	96
59		경기남부	과천	도바나 야수시	1967.10.15.	92
60		경기남부	과천	최지연	1970.6.26.	92
61		경기남부	과천	이시바시 레이꼬	1957.09.16.	96
62		경기남부	과천	스기야마 미도리	1955.04.09.	96
63		경기남부	과천	고바야시 미야꼬	1967.03.02.	98

64	교회	경기남부	과천	정사미	1970.08.16.	90
65		경기남부	과천	이동주	1970.03.24.	92
66		경기남부	과천	한명원		90
67		경기남부	과천	권정현	1992.02.24.	94
68		경기남부	과천	가토리 데루요	1972.12.21.	94
69		경기남부	과천	네기시 에쓰꼬	1962.08.11.	90
70		강원	강릉	다나까 후미꼬	1972.01.17.	78
71		강원	강릉	가이 사쓰끼	1958.09.14.	92
72		강원	강릉	이범준	1946.11.02.	92
73		강원	강릉	임원철	1959.05.05.	96
74		강원	강릉	박효철	1965.03.23.	76
75		강원	강릉	고우찌 히사에	1964.04.06.	78
76		강원	강릉	신포 나오미	1973.03.08	78
77		강원	강릉	김상호	1954.07.18.	78
78		대전충남	금산	정청진	1984.05.23.	82
79		대전충남	금산	야마모토 마유미	1969.03.25.	96
80		대전충남	금산	무라야마 아끼꼬	1963.07.16.	96
81		대전충남	금산	도다 히로미	1961.04.16.	92
82		대전충남	금산	후지모토 히토미	1961.04.21.	96
83		대전충남	홍성	고바야시 시노	1964.04.25.	92
84		대전충남	홍성	하세가와 미에	1971.12.06.	92
85		대전충남	홍성	사꾸라바 도시코	1967.11.14.	96
86		대전충남	홍성	오오수미 사유리	1967.03.25.	96
87		대전충남	홍성	아라따니 도미꼬	1975.12.10.	96
88		대전충남	홍성	야마모또 사유리	1962.03.03.	94
89		대전충남	홍성	아베 도모꼬	1970.12.03.	94
90		대전충남	홍성	니노미야 다까꼬	1965.10.28.	96
91		경북	포항	아오야마 미사키	1971.11.29.	92
92		대구	수성	정도국	1970.08.13.	94
93		대구	수성	손영락	1963.04.26.	76

94	교회	대구	수성	정태옥	1949.06.15.	90
95		대구	수성	이안매		80
96		대구	수성	이의태		94
97		대구	수성	야마모토 유카리	1963.12.10.	88
98		대구	수성	안도 슈이치	1963.12.25.	80
99		대구	수성	구본득	1938.01.15.	94
100		대구	수성	서춘희		88
101		대구	수성	구경모	1964.04.18.	96
102		대구	수성	권태화	1969.07.07.	92
103		대구	수성	이송관	1951.10.20.	88
104		대구	수성	정귀숙	1954.07.05.	96
105		대구	수성	정지윤	1948.11.15.	96
106		대구	수성	김광춘	1944.09.29.	94
107		대구	수성	정하철	1957.07.07.	90
108		경남	창원	엔도 후미꼬	1956.11.29.	96
109		경남	창원	김가령	1960.03.17.	96
110		경남	창원	송종식	1953.02.27.	96
111		경남	창원	장옥자	1956.02.07.	96
112		경남	창원	김영숙	1961.01.17.	94
113		경남	창원	박정록	1958.07.18.	96
114		경남	창원	김봉애	1958.02.18.	94
115		경남	창원	이동주	1955.02.19.	96
116		전북	장수	이마나리 요시에	1961.05.21.	88
117		전북	장수	한정순	1943.06.09.	90
118		전북	장수	박영임	1955.07.14.	94
119		전북	장수	이정주	1988.09.07.	96
120		전북	장수	이남희	1960.06.15.	96
121		전북	장수	주병열	1951.08.18.	90
122		전북	장수	황등웅	1941.03.20.	84
123		전북	장수	유금순	1954.04.27.	86

124	교회	전북	장수	이타이 요코	1964.09.26.	88
125		전북	장수	한상호	1953.02.20.	80
126		광주전남	장성	김기태	1969.12.10.	96
127		광주전남	장성	구보 마사코	1966.01.18.	92
128		광주전남	장성	조기옥	1960.02.24.	90
129		광주전남	장성	양계자	1955.06.16.	94
130		광주전남	장성	김희정	1977.05.22.	96
131		광주전남	보성	소정희	1998.08.23.	78
132		광주전남	보성	소정은	1999.07.13.	72
133		광주전남	보성	박은경	1998.10.26.	74
134		광주전남	보성	다카시마 가나코	1961.06.28.	74
135		부산울산	북부산	미우라 게이코	1961.07.25.	96
136		부산울산	북부산	야마자끼 아사코	1969.08.16.	92
137		부산울산	북부산	호리 히로코	1966.09.12.	96
138		부산울산	북부산	나카지마 유우코	1969.01.27.	96
139		부산울산	북부산	박복순	1951.12.06.	92
140		부산울산	북부산	한영미	1957.11.03.	94
141		부산울산	북부산	시라이시 나오미	1960.01.14.	96
142		부산울산	북부산	오꾸노 미호	1967.12.26.	90
143		부산울산	북부산	조성안	1966.08.20.	86
144		부산울산	북부산	양춘자	1940.01.12.	92
145		부산울산	북부산	임은숙	1942.05.30.	92
146		부산울산	북부산	임희금	1942.01.23.	94
147		부산울산	북부산	김금자	1947.06.28.	96
148		부산울산	북부산	지정명	1968.03.05.	94
149		부산울산	북부산	도기열	1939.07.28.	94
150		부산울산	북부산	김상면	1965.04.14.	96
151		부산울산	북부산	오오니시 메구미	1972.09.25.	96
152		부산울산	북부산	니시무라 아유미	1965.09.01.	96
153		부산울산	북부산	이경열	1965.12.14.	94

154	교회	부산울산	북부산	강열열	1968.02.25.	96
155		부산울산	울산	고이즈미 미즈	1959.03.30.	94
156		부산울산	울산	이가은	1960.11.03.	92
157		부산울산	울산	마즈모도 유끼꼬	1971.11.04.	84
158		부산울산	울산	하세가와 나옴	1969.12.04.	82
159		부산울산	울산	스즈끼 가요	1971.09.24.	96
160		부산울산	울산	가마모토 히로노리	1972.04.03.	84
161		부산울산	울산	이와모토 마리꼬	1962.05.03.	84
162		부산울산	울산	오오다 가즈꼬	1965.03.04.	80
163		부산울산	울산	나카타니 유리	1966.06.25.	96
164		부산울산	울산	김승희	1969.09.03.	82
165		부산울산	울산	와타이 미와꼬	1964.07.03.	80
166		부산울산	울산	와타나베 테루꼬	1961.10.09.	78
167		부산울산	울산	바바 사오리	1969.11.12.	94
총 214명 응시중 167명 합격						

나. 천일국 원년 제3차 교구원리시험 시행

- 1) 일시 : 천일국 원년 6월 7일(양7.14)(일) 13:00~15:00
- 2) 장소 : 각 교회성전
- 3) 대상 : 교회원리시험 합격자
- 4) 감독자 : 목회자 또는 동시험 합격자 3인
- 5) 시행 요령
 - ① 원리강론 후편의 내용 중에서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 ② 시험문제지는 시행일시에 맞춰 응시직전 배부한다.
 - ③ 답안기재는 첨부된 답안지에 상세히 쓴다.
 - ④ 일본식구 및 외국식구는 필히 한국어로 답안을 쓴다.
 - ⑤ 답안지 상단 기재란은 빠짐없이 기재한다.(감독자 날인이 없으면 무효임)

다. 천일국 원년 제3차 교회원리시험 시행

- 1) 일시 : 천일국 원년 6월 7일(양7.14)(일) 13:00~15:00
- 2) 장소 : 각 교회성전
- 3) 대상 : 전 식구
- 4) 감독자 : 목회자 또는 동 시험 합격자 3인
- 5) 시행 요령

- ① 원리강론 총서와 전편의 내용 중에서 괄호 넣기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 ② 시험문제지는 시행일시에 맞춰 응시직전 배부한다.
- ③ 답안기재는 첨부된 답안지에 번호와 답만 쓴다.
- ④ 일본 및 외국 식구는 필히 한국어로 답안을 쓴다.
- ⑤ 답안지 상단 기재란은 빠짐없이 기재한다.(감독자 날인이 없으면 무효임)

마. 행정사항 : 답안지는 7월 24일까지 등기우편으로(협회 전도교육국) 우송하며, 기한 경과 후 도착한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보낼 곳: 우140-869 서울시 용산구 청과동1가 161번지 6층 전도교육국

한 국 총 회 장 양 창 식

천일국 원년 제3차 교구원리시험 문제지

천일국 원년 6월 7일(양7.14) 시행

※ 정답은 첨부된 답안지 양식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 민족사가 복귀섭리 역사의 중심사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동시성시대는 어찌하여 생기게 되는가?
3.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제물을 바쳤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4.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노정에서 세례요한의 불신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
5. 복귀섭리연장시대의 중심민족과 중심사료를 설명하시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일국 원년 제3차 교구원리시험 답안지

천일국 원년 6월 7일(양7.14) 시행

소 속	_____교구 _____교회	성 명	
생년월일		감독자	(인)

※ 정답은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으로 상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이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국 원년 제3차 교회원리시험 문제지

천일국 원년 6월 7일(양7.14) 시행

※ 정답은 첨부된 답안지 양식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원리에 알맞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 괄호안에 써넣으시오.

[총 서]

1.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1)의 지향성과 이에 반하여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2)의 지향성이 동일한 개체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인간의 (3)을 발견하게 된다.

[창조원리]

2.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4)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5)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6)이라고 한다.

3.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7)를 완성하고 (8)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9)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4.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분담을 완수하여서만 완성되도록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그의 책임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10)까지도 닮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업에 가담케 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11)의 입장에서 (12)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타락론]

5. 해와는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13)을 번식하여 죄악의 사회를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탄(천사)을 중심한 (14)에 의하여 서로 (15)를 맺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6. 아담이 (16)과 같은 입장에서 있었던 해와와 상대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났던 (17)인 사랑의 힘은,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하여, 마침내 그들은 (18)인 불륜한 (19)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인류역사 종말론]

7.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곧 죄가 없는 창조본연의 입장으로 (20)시킨다는 뜻이 아닐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곧 (21)인 것이다.

8. 문화권의 발전사가 수많은 종교의 소장과 또는 융합에 따라 결국 하나의 종교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22)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은, (23)가 바로 하나의 통일된 세계어로 (24)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9. 보내시는 메시아를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믿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25)수행여부에 따

라 나타날 (26)의 결과에 대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성사에 대한 예언을 양면으로 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이다.

10.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의 간곡한 소망은 물론 (27)의 강림이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유대인들이 갈망해 왔던 것은 (28)의 재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메시아의 강림에 앞서 그의 앞길을 (29)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마고 분명히 약속하셨었기 때문이다.

[부활론]

11. 어찌하여 예수님은 현재 그 육신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30)라고 말씀하셨던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자리, 즉 (31)의 (32)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12. 지상성도들은 낙원에 있는 영인들의 (33)에 의하여 재림주님 앞으로 나아가 뜻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연히 (34)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정론]

13.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35)이시므로, 하나님의 창조목적도 역시 그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시려는 복귀섭리의 뜻도 유일하고 불변하며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36)에 대한 예정 또한 (37)일 것임은 말한 필요도 없는 것이다.

[기독론]

14.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38)으로 일으켜 드릴 수 있는 실체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39)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우주간에 있어서 (40)한 존재인 것이다.

[보기]

정조관계 개성체 인류역사 복귀 혈연관계 통일 주관권 엘리야 창조주 본심
육적 모순성 상대적 사랑 이성성상 비원리적 3대축복 형상 창조성 사탄
메시아 혈통 양면 절대자 선 절대적 상대적 예비 유일무이 협조 죽은자
만물 문화권 뜻 책임분담 누시엘 사위기대 사심 복귀섭리 복귀

※ 원리에 알맞는 성구를 보기에서 골라 괄호안에 써넣으시오.

15. 수수작용에 관한 성구 : (41) (42)

16. 생명나무에 관한 성구 : (43) (44)

17. 말씀심판에 관한 성구 : (45) (46)

18.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성구 : (47) (48)

19. 부활의 참된 의의에 관한 성구 : (49) (50)

[보기]

요 12:48 눅 1:31-33 고전 15:22 마 7:12 잠 13:12
마 10:42 계 22:14 사 11:4 사 9:6 요 5:24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천일국 원년 제3차 교회원리시험 답안지

천일국 원년 6월 7일(양7.14) 시행

소 속	-----교구-----교회	성 명	
생년월일		감독자	인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